

# ‘보좌진 3인방’이 靑 안살림·대통령 일정 도맡아

청와대 생활 누가 챙기나

## 정호성·안봉근 제1·2비서관 이재만 총무 인사업무 담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 33년3개월만에 다시 들어오면서 박 대통령 주변을 챙기는 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첫 미혼의 독신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생활은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단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이후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보좌진 3인방’이 청와대에서도 박 당선인을 그대로 보좌하게 된다.

박 대통령을 옆에서 챙기게 되는 제1부속비서관의 경우,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맡는다. 제1부속비서관은 과

거 부속실장의 역할을 한다.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일정을 책임진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갈지를 정한다는 얘기다. 부속실장은 대통령에게 올라갈 모든 보고서를 관리하는 중책도 맡고 있어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당 대표 또는 특별한 당직이 없을 때에는 모든 일정을 따라다니며 수행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을 맡게 됐다. 과거 영부인을 담당하던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능이 바뀌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듣게 되는 민원 등을 챙기는 역할을 한다.

한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정책과 인사를 책임졌던 이재만 전 보좌관은 총무비서관으로 청와대 등의 인사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부터 수행역을 인계받은 이재만 전 비서관은 계속해서 박 당선인을 수행한다.

이날도 이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사저를 떠나 청와대에 들어올 때 까지 박 대통령이 탄 차량의 앞좌석에 탑승했다.

주치의는 여성으로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헤어스타일을 담당하던 미용 담당과 운전사도 그대로 청와대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이나 직계 존비속을 맡았던 경호 인력이 불필요한 만큼 경호인력은 주는 반면 10명 수준이던 여성 경호인력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패션정치’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현충원, 취임식장, 청와대 등 행사에서 각기 다른 복장을 선보이며 ‘패션 정치’를 선보였다. 왼쪽부터 자택 앞, 취임식장, 청와대 앞, 청와대 본관의 박 대통령. /\*연합뉴스

## 청와대 대변인에 윤창중·김행

정무비서관 김선동·기획 홍남기·민정 이종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청와대 초대 대변인에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과 소셜네트워크 뉴스 서비스 위키트리의 김행 부회장을 각각 내정했다.

윤 대변인 내정자는 코리아타임스와 KBS를 거쳐 세계일보에서 정치부장을 지냈고 1999년 문화일보로 옮겨 정치분야 논설위원 및 논설실장으로 활동한 우과 언론인 출신으로 인수위 대변인에 발탁돼 정치에 입문했다.

윤 내정자는 인수위 대변인 시절 인사 발표시 ‘밀봉’ 논란을 빚었으며 언론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고압적인 자세와 일방적 태도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사부장과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을 지낸 여론조사 전문가로, 2002년 정몽준 당시 후보가 이끌던 국민통합 21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지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과 함께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대통령 측근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국제협력비서관에 김홍근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내정됐고, 유인봉 국정기획수석



윤창중 대변인 김행 대변인

비서관 산하 기획관리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에 각각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오군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이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무비서관에는 김선동 전 의원, 기획비서관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민정비서관에는 이종희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조운현 변호사, 법무비서관에는 변환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금융비서관에는 주영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비서관에는 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립협력실장, 중소기업정책국장, 사회안전비서관에는 강신명 경북 경찰청장, 기후환경비서관에 최홍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교육비서관엔 김재춘 영남대 교수, 방송정보통신비

서관에는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연설기록비서관엔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에서 일했던 조인근 전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 메시지팀장, 춘추관장에는 최상화 대통령 취임준비위실무추진단장,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이종원 전 조선일보 부국장급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 김중호 광주시정책기획관 靑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광주시 김중호 (49·부이사관·사진) 창조도시정책기획관이 25일 청와대 행정관으로 전출됐다.

김 행정관은 이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첫 출근했다. 청와대 행정관은 비서관과 중앙부처의 연결고리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장급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전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인사는 이정현 정무수석이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lucky@

## “한가한 점심 먹기는 정말 오랜만”

시민으로 돌아간 이명박... 비서관에 임재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0시를 기해 통치권을 인수받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됐다.

0시까지 서울 논현동 사저에 마련된 국가지휘통신망을 통해 북한 동향을 비롯해 안보 상황을 점검한 이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던 일과 식사를 하며 시민으로서 ‘평범한 하루’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다시 사저로 돌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며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직 장관, 참모진과 사저에서 만나 지난 5년을 회고하며 담소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사저 인근에서 이들과 오찬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렇게 한가하게 점심을 먹기는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인간사의 진한 우정을 주제로 한 함석헌 시인의

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다시 사저로 돌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며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직 장관, 참모진과 사저에서 만나 지난 5년을 회고하며 담소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사저 인근에서 이들과 오찬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렇게 한가하게 점심을 먹기는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인간사의 진한 우정을 주제로 한 함석헌 시인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를 낭독해 한때 자리가 숙연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별도의 개인 사무실을 차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전·현직 국가 정상급 인사나 기업인 등이 방문할 때 접견 장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정상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국내외 특강과 민간외교 활동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 특히 재임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녹색성장 전략을 민간 영역으로 전파하고, 4대강 사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과 2급 상당 비서관 2명을 둘 수 있도록 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간 이들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날 1급 비서관에는 임재현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임명했다.

임 전 부속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 4월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2011년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수행 비서를 맡아 이 전 대통령의 ‘그림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美 AP “한반도 대화정책이나 강경노선이나 축각”

### 해외 언론 반응

25일 해외 언론들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다루는 등 기대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주요 외신은 새 정부의 대북 및 경제정책의 향방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일각에선 대북관계 개선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끈

다. 미국 AP통신은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은 한결같이 ‘반공주의 독재자’의 탈인 박 대통령이 지난 5년간 한반도에 흘렸던 적대감을 완화하는 대화정책을 추구할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경 노선을 유지할지에 축격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들은 새 정부 출범에 호감과 기대를 드러냈다. 귀지자옌(國際在線)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가 오늘 정식 취임한다”면서 “중·한 양국관계에 새로운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미 동맹 강화로 한·중 관계 개선에 지장이

올 수 있음을 우려하며 박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뿐 아니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이슈에서 중국과 대화와 논의를 더욱 활발히 펼쳐 주기를 희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박근혜 당선인이 25일 대통령 선서를 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과 일본·한국 등 동북아시아 세 나라의 새 지도자 중 박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원)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토지 급구!**  
(매수자 대기) **2억~10억**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야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 “담양” 무인텔  
- 객실 : 32개  
- 현 상임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중앙공인중개사**

**부동산 구함**

- ☆ 아파트 밀집지역 및 상권 형성된곳 병의원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구함
- ☆ 지하철 뽕촌역 인근 광송간 대로변 사옥부지 100~150평 구함
- ☆ 북구지역 사옥부지(약150평내외)또는 사옥건물 구함

**상가건물**

- ☆ 광산구 신창동 보증금 3억5천만원 월세 1,650만원 매매가 27억원
- ☆ 광산구 동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매매가 평당99만원
- ☆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 ☆ 서구 화정동 지하철 화정역 인근 광송간 도로변 준주거지역 대 345㎡(104평) 매매가 평당 750만원
- ☆ 광산구 송촌동 자연녹지 2,988㎡(904평) 매매가 평당60만원

**전원주택지**

- ☆ 광산구 오운동 97번 시내버스 종점 마을 전원주택지(전망좋음) 전 2,436㎡(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총창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실업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남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영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22 · 111-602-2532  
광주광역시 신복동, 대인동 신성1단지1번

**급매 상가/원룸**

- ▶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원 월세794만
- ▶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 투룸 47개
- ▶ 토지면적 : 330.58㎡ (100p)
- ▶ 건축면적 : 737.19㎡ (223p)
- ▶ 매매가 6억 8천 2천 294천 4백 40원 보증금 4천 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수익 3억 9천 9백만 대출이자 5.7% 월 116만원 공제하면 월순 수익 678만원 연수익을 20%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면서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 011-647-4747

**유동화자산매각**

- ▶ 순천시 조례동 587-4의 2필지
- ▶ 에코그리드 호텔
- ▶ 토지 2008㎡ (607평)
- ▶ 건물 22759㎡ (6,684평)
- ▶ 감정가격 450억 4천
- ▶ 매매가격 220억

문의 : 011-684-3886